



가나안 이야기

「 약속의 땅을 향한 행복한 동행 」

■ 다비드 • 하다스 • 담희 • 단아 • 도하 • 다운

샬롬! 예루살렘에서 문안드립니다. 평안하신지요?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지금 밖에서 고국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지켜보는 심정은 예전보다 더 애뜻합니다. 때로는 문제 안에 속해서 살다보니 외부에서 바라 보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됩니다. 지나친 우려일 수도 있지만 불안한 안보 이야기나 근래에 전개되고 있는 국내외 정세를 들여다보며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화사한 봄의 끝자락에서 이제 곧 5월을 맞게 되는데 5월의 끝자락에서 우리 모두가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절망보다는 희망을 서로가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난 한 달의 삶과 사역을 나눕니다. 읽고 기도해 주십시오.

■ 꽃에 깃들 고백

얼마전 셰펠라 지역에 ‘칼라니아’ (이스라엘의 국화, 솔로몬의 백합화, 아네모네)가 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정말이지 넓게 펼쳐진 들판에 칼라니아가 너무도 아름답게 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이처럼 많은 칼라니아가 한 곳에 피어있는 것은 처음 보았기에 밀려오는 감동이 컸습니다. 이제 곧 얼마 후에는 이 꽃들도 다 말라 시들겠지만 내년이 되면 어김없이 그곳에 또다시 꽃들이 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광경은 수천년 동안 이 땅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풍경이기에 내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기대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 변한 것과 변화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제 생각에 변한 것은 사람이고 변하지 않은 것은 자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전 지역의 수많은 성지 사이트들보다 유독 제게 더 깊은 영감을 주고 또 은혜를 주는 곳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 자연 그 자체입니다. 제가 즐겨듣는 ‘찬양하는 시인들’의 노래 가운데 ‘날은 날에게’ 라는 찬양 가사처럼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꽃은 꽃에게, 땅은 땅에게 저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데 사람은 왜 고백하지 못하나? 바라기는 지금 서있는 곳에서 더 많이 그리고 누구보다 더 주님 사랑 고백하고 더 알고 더 닮고 더 따르기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삶의 환경 달라져도 그 마음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 코리엘 프로젝트 & 코리엘 쉼터 이야기

코리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계명 실천 플랫폼으로서 한국과 이스라엘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코리엘 사역은 현장의 요청과 필요에 따른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와 인적 자원을 한국으로부터 동원하여 현장에 적용하는 네트워크 채널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의 교회들과 현지 사역자들 간의 협력 사역을 이루어 나갈 현장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원들이 채워지고 또 가장 적합한 처소를 허락하시도록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리 가깝지 않은 갈릴리를 근래에는 자주 찾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곳에서 ‘코리엘 쉼터’(Koriel Shelter) 열 계획을 가지고 적합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하게도 처소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정보를 습득하게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미리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당초 생각하고 또 계획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또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나라와 영광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어떠한 일들에도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심은 그 씨앗이 그 땅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해 저희들은 이곳에서 계속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곳에서 기도로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동역해 주십시오.

■ 베두윈 마을 이야기

베두윈 마을 철거문제와 이주 문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타마르 프로젝트(아이들 교육)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내달 5월 27일부터 라마단이 시작됩니다. 저를 포함한 이 땅의 사역자들이 기도로 더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더불어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 아이들과 함께 가까운 근교로 소풍을 다녀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날씨도 덥고 또 아이들이 물을 좋해 물놀이가 가능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별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봄의 끝자락에서



붕대감은 도하의 손



대산지역(크르르 히팀)



코리엘 쉼터



꽃이 피어나다



영건 젓



베두윈 마을 아이들

「 기도제목 」 “*Flowers will bloom where we planted together*” - David J. JUNG

1. 보내신 자리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2. 요압 아저씨과 마아얀 가정의 예수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소서
3. 갈릴리에 전개될 코리엘 쉼터(Koriel Shelter) 사역을 위한 준비와 진행 그리고 적합한 처소를 주시도록
4. 현장 사역과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데 가장 적합한 Status(비자문제)가 마련 되도록
5. 정착촌 건립과 그에 따른 베두원 마을 철거 문제로 야기된 어려움들과 그에 따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 여러분의 기도제목을 보내주시면 이곳에서 저희도 함께 중보 하겠습니다.

「 후원정보 」	「 연락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헌금: 다비드/하다스(담희, 단아, 도하, 다온) ■ 외환(하나)은행: 181-04-01159-983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헌금: 타마르/코리엘 프로젝트 ■ 외환(하나)은행: 990-007955-919 ■ 예금주: 침*해*선 / TEL : 02-3775-4471 1) 재정담당 : 최은섭 (010-5334-7856), E-MAIL: 0903ces@naver.com 2) 문서담당 : 박은성 (010-3745-2025), E-MAIL: mindlle-1@hanmail.net	※ 주 소 : Eli Tavin 22/10, Jerusalem 9770001, Israel. JAESUK JUNG ※ 연락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 +972-(0)58-6623513 (다비드) +972-(0)58-4623514 (하다스) ■ 집전화 : 070-8632-0432 ■ E-MAIL: korielpro@gmail.com ----- # 이스라엘로 보내는 소포는 우체국 일반 소포(예제:CP123456789KR)만 가능합니다. EMS는 세금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